

전라남도 코로나19 주간소식 특집3호

12 주차

(2019.03.16 ~ 2020.03.22.)

발행일 2020. 03. 24.(화)

발행처 전라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목차 —

- I. 코로나19 발생 현황 II.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현황 III. 해외 발생 현황 IV. 주간 정책동향 V. 팩트체크 VI. 코로나19 칼럼

I. 코로나19 발생 현황 (3월 23일 0시 기준)

현황표

- (전국) 확진환자 총 8,961명 중 완치자는 3,166명으로 지난주 대비 2,029명 증가, 사망자는 111명으로 확인됨
- (전남) 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명의 접촉자 중 211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21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 (광주) 1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183명의 접촉자 중 1,109명은 격리 해제되었으며 74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음

단위: 명(전주대비)

구분	확진환자 현황				접촉자 현황			검사현황		
	치료중	완치	사망	합계	격리중	격리해제	합계	검사중	결과음성	합계
전국	5,684 (-1,340)	3,166 (+2,029)	111 (+36)	8,961 (+725)	-	-	-	13,628 (-1,343)	315,447 (+64,150)	329,075 (+62,807)
전남	3 (+1)	3 (+1)	0 (+0)	6 (+2)	21 (-2)	211 (+16)	232 (+14)	175 (+122)	5,991 (+4,395)	6,166 (+4,517)
광주	9 (-4)	10 (+7)	0 (+0)	19 (+3)	74 (-36)	1,109 (+104)	1,183 (+68)	8 (-42)	6,141 (+1,045)	6,149 (+1,003)

(지역별)

단위: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검역
확진환자	330	19	6,411	40	19	24	36	42	47
(%)	(3.68)	(1.22)	(71.54)	(0.45)	(0.21)	(0.27)	(0.40)	(0.47)	(0.52)
10만명당 발생률	3.39	3.19	263.12	1.35	1.30	1.63	3.14	12.27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확진환자	351	30	37	120	10	6	1,256	89	4
(%)	(3.92)	(0.33)	(0.41)	(1.34)	(0.11)	(0.07)	(14.02)	(0.99)	(0.04)
10만명당 발생률	2.65	1.95	2.31	5.65	0.55	0.32	47.17	2.65	0.60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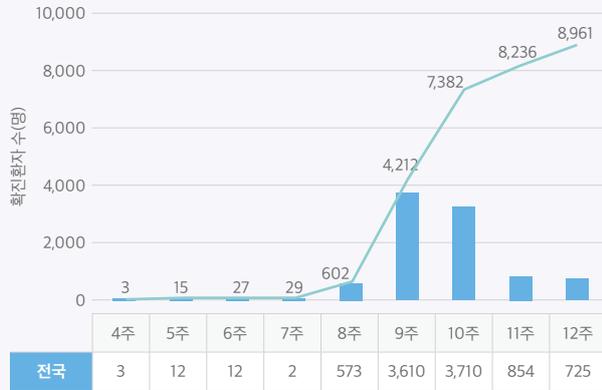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집단사례				개별사례 또는 조사중
		신천지 관련	해의유입 관련	그 외	소계	
전국	8,961	5,054 (56.4%)	-	-	7,266 (81.8%)	1,695 (18.9%)
전남	6	1 (16.7%)	1 (16.7%)	2 (33.3%)	4 (66.7%)	2 (33.3%)
광주	19	9 (47.4%)	1 (5.3%)	5 (26.3%)	15 (78.9%)	4 (21.1%)

확진환자 발행 현황

- (전국) 확진환자의 약 50%는 9주차(2월 24일 ~ 3월 1일)에 발생하였음, 확진환자 증가세 둔화
- (전남) 확진환자의 75%는 9주차(2월 24일 ~ 3월 1일)에 발생하였음, 12주차 확진환자 2명 추가 발생
- (광주) 확진환자의 약 50%는 8주차(2월 17일 ~ 2월 23일)에 발생하였음, 확진환자 지속적 추가 발생

■ 전국 (주별, 누적)



■ 광주·전남 (주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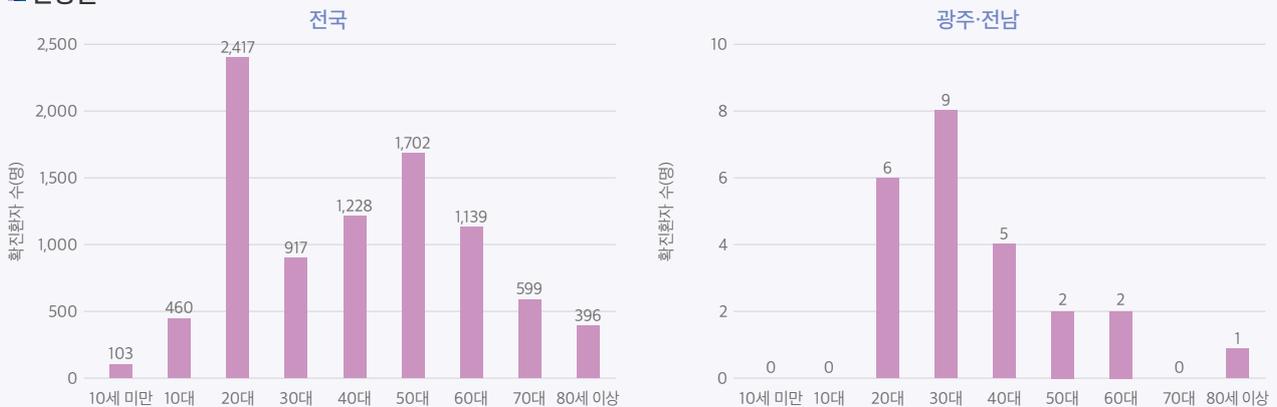
성별, 연령별 분포

- (전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로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광주·전남)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6%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성별



■ 연령별



치명률

- 국내 확진환자 8,961명 중 사망자는 111명으로 치명률 1.2%
- 현재 기준 광주·전남 사망자 없음

II.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현황 (3월 23일 기준)

선별 진료소

· 지정현황 (바로가기)

합계	전남 시·군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74	23	12	39

- Drive-Thru 설치 시·군: 목포, 여수, 광양, 구례, 보성,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 운영현황

구분	진료			검체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보건소	Drive-Thru	의료기관
건수 (전주대비)	7,596 (+995)	917 (+168)	9,096 (+1,915)	3,470 (+373)	547 (+94)	2,127 (+415)

국민안심병원

· 지정현황 (바로가기)

유형	시·군	기관명	전화번호	운영(예정)일자
A (6개)	장흥군	장흥종합병원	061-862-8300	2020.02.25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061-690-6000	2020.03.02
	여수시	여수한국병원	061-653-2000	2020.03.03
	여수시	여수제일병원	061-689-8114	2020.03.04
	목포시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2020.03.05
	여수시	여수전남병원	061-640-7575	2020.03.10
B (7개)	목포시	목포기독병원	061-280-7500	2020.02.26
	순천시	순천한국병원	061-740-5000	2020.02.26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061-720-6434	2020.02.27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061-280-3000	2020.02.28
	목포시	목포한국병원	061-270-5500	2020.02.29
	고흥군	고흥종합병원	061-835-6000	2020.03.04
	고흥군	녹동현대병원	061-840-1200	2020.03.16

- 유형 A: 호흡기전용 외래 진료소 분리 운영 병원

- 유형 B: 유형 A + 선별진료소, 호흡기 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 병원

III. 해외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3월 22일))

전세계 발생 현황

- 전세계 확진환자 총 292,142명, 사망 12,784명(사망률 4.0%)
 - (서태평양) 94,787명 발생, 3,438명 사망(사망률 3.6%)
 - (유럽) 151,293명 발생, 7,426명 사망(사망률 4.9%)
 - (동남아시아) 1,257명 발생, 45명 사망(사망률 3.6%)
 - (중동) 23,669명 발생, 1,596명 사망(사망률 6.7%)
 - (아메리카) 19,685명 발생, 252명 사망(사망률 1.3%)
 - (아프리카) 739명 발생, 20명 사망(사망률 2.7%)

· 발생 상위 20개국

단위: 명

국가 및 지역	확진환자(전주대비)*	사망자(전주대비)*	사망률(%)
중국	81,498 (+450)	3,267 (+63)	4.0
이탈리아	53,578 (+32,421)	4,827 (+3,386)	9.0
스페인	24,926 (+19,173)	1,326 (+1,190)	5.3
독일	21,463 (+17,668)	67 (+59)	0.3
이란	20,610 (+7,881)	1,556 (+948)	7.5
미국	15,219 (+13,541)	201 (+160)	1.3
프랑스	14,296 (+9,827)	562 (+471)	3.9
한국	8,897 (+735)	104 (+29)	1.2
스위스	6,077 (+4,718)	56 (+45)	0.9
영국	5,018 (+3,874)	233 (+212)	4.6
네덜란드	3,631 (+2,672)	136 (+124)	3.7
오스트리아	3,024 (+2,224)	8 (+7)	0.3
벨기에	2,815 (+2,126)	67 (+67)	2.4
노르웨이	1,926 (+1,019)	7 (+6)	0.4
스웨덴	1,746 (+822)	20 (+20)	1.1
덴마크	1,326 (+499)	13 (+13)	1.0
포르투갈	1,280 (+1,168)	12 (+12)	0.9
말레이시아	1,183 (+945)	3 (+3)	0.3
호주	1,081 (+832)	7 (+4)	0.6
캐나다	1,048 (+804)	13 (+12)	1.2

*확진환자 및 사망자 괄호 안의 숫자는 전주 대비 증감(3월 8일~3월 14일)

- (이탈리아)
 - 전주 대비 확진자 32,421명 증가, 사망률 2.2%p 증가(6.8%→9.0%)
 - 누적사망자 중국 넘어 세계에서 사망자 1위, 이탈리아 야외 스포츠와 생산 활동 전면 금지
- (스페인)
 - 전주 대비 확진자 19,173명 증가, 사망률 1.9%p 증가(2.4%→5.3%)
 - 30일간 항로,해로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
- (독일)
 - 전주 대비 확진자 17,668명 증가, 사망률 0.1%p 증가(0.2%→0.3%)
 -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 최소 2주간 금지
- (이란)
 - 전주 대비 확진자 7,881명 증가, 사망률 2.7%p 증가(4.8%→7.5%)
- (미국)
 - 전주 대비 확진자 13,541명 증가, 확진자 증가 폭 커 사망률 1.1%p 감소(2.4%→1.3%)
 - 뉴욕, 확진자 1만명 돌파하면서 재난구역 선포, 비상 체제 돌입

IV. 주간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 대구, 경북 사상 첫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선포

- 3월 15일,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경산시·청도군·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 특별재난지역: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
- (혜택) 피해 복구비 50% 국비 지원, 방역관리비·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지원,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 전기요금 건강보험료·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적용 확대

-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국외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1대1 발열 체크, 국내 체류지 및 연락처 등 확보를 통한 검역 시행
- (절차 1) 입국 단계부터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입국 후 14일간 모바일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
 - 대상 국가: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 (절차 2) 유럽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전원 대상으로 진단검사 실시
 - 양성: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후 치료
 - 음성: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역소 실험실 24시간 운영 및 추가인력 배치
- 현재 임시생활시설 7개소 1000여실 마련, 추후 3개소 190여실 확보 예정

· 장기화 대응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으로써, 세계적 대유행이 통제되는 시기까지 지속 유지 권고
- (실천 방식)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 연기 혹은 취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을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 생필품 구매·의료기관 방문·출퇴근은 제외한 외출 자제, 다른 사람과의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 소독·환기 등
- (운영 제한) 위험시설·업종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되 운영 시 방역 지침 철저히 준수 및 지침 미준수 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실시
 - 적용대상: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전라남도

· 전남도, 요양원 등 취약시설 코호트 수준의 특별관리 실시

- (환 자) 요양병원·요양원 매일 2회 이상 발열체크, 유증상자 격리시설 입소 및 진단검사 실시
- (종사자)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업무 배제 및 14일 자가격리 이행
- 외부인 출입자 명부 작성, 입소자 외출·외박·면회·자원봉사자 출입 전면 금지

· 전남도, 다중이용시설 및 학원 방역관리

-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PC방, 노래방, 민간체육 시설 등 도·시군 합동 점검 및 학교 휴업 연장에 따라 학원 휴원토록 지속 권고
- (점검현황) PC방(796개소/137완료), 노래방(911개소/132완료), 민간체육시설(856개소/90완료)
- (휴원현황) 학원 3,384개소 중 735개소 휴원

·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발족, 지자체 최초

- 경제주체들이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광주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운영
- (수행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위기상황 진단, 극복 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대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기능

· 광주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 구성

-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시민 대상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조치
- (구성) 재난심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신건강전문요원 66명
- (방법) 광역단위 코로나19 심리지원단과 5개 자치구 심리지원반 구성·운영, 생활치료센터 전담 심리상담 체계 구축, '마음건강주치의'를 통한 전문 상담 등 지원
- (내용) 전화상담·문자전송을 통한 정보제공, 정신건강 평가, 고위험군 선별 및 치료연계 등

V. 팩트체크

아니요. 식염수로 코를 자주 헹군 사람들이 COVID-19에 감염되는 것을 막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식염수로 코를 헹구면 감기에서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호흡기 감염을 예방해준다는 증거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염수로 코를 정기적으로 헹구면 COVID-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2019nCoV

9 March 2020



도내 감염병전담병원이 나아가야 할 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전라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전문위원
신민호 교수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지 32일 만인 지난 2월 20일에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9,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1.2%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 90여 명의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2%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증과 중등도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이 단기간에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5%인 중증환자를 치료할 음압격리병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준비되고 있다.

전국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총 198개이며, 그중 광주·전남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22병상(전남대병원 7, 조선대병원 5, 국립목포병원 10)이다. 하지만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목포병원은 의료진 부족, 시설 부적합 등의 이유로 음압격리병상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광주·전남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2병상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중증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음압격리병상을 지역별 거점병원, 감염병 관리기관 등에 최대 900개 이상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에 250여 병상을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조선대병원에서 광주광역시 지원을 받아 5개 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며, 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국비 지원을 통해 5개 병상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두 지역을 감당하는 병상으로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전라남도도는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1.9%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와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량의 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만으로는 대응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자체별로 지정하였다. 현재 전남 내 감염병전담병원은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이 지정되어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337병상을 확보하였다(표 1). 음압격리병상은 목포시의료원을 제외한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각각 4병상씩 운영 중이다. 지난 13일 대구의 코로나 환자 28명이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나머지 두 의료원은 전체 소개하여 대기 중이다.

세 의료원의 인력을 살펴보면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순천의료원에 1명이 있어 감염병전담병원 가동 시 호흡기내과와 감염내과 의사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근무 가능한 간호사 수는 목포시의료원 72명, 순천의료원 77명, 강진의료원 32명으로 강진의료원의 경우, 78병상에 환자가 모두 입원했을 때 간호사 1명이 환자 10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시설의 경우, 순천의료원은 이동형음압기를 2개 보유 중이며 추가로 11개를 더 지원받아 임시 음압병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목포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은 보유 중인 이동형음압기 1개를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어 필요시 가용 가능한 이동형음압기는 없다. 또한 장시간 Level D 보호구를 착용할 때 호흡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구인 PAPR(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은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에 구비되어 있지만, 후드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실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PAPR이 없어 의료인이 보호구를 입고 장시간 근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대구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순천의료원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환자 30여 명을 한꺼번에 전원 받다 보니 경험이 없는 의료진들은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의료원 내에 중증환자만 돌볼 수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이송된 대구 코로나 환자 중 중증환자로 이환 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원내에 1개밖에 없는 CT실을 코로나 환자 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는 일반 환자들이 CT 검사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이송 받은 환자 중 고령 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다수 있어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대다수가 고령의 환자로 환자가 직접 체온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간호사가 면대면으로 확인을 해야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전라남도의 의료원들은 급하게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인력 및 시설에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타 광역시·도의 의료원은 중증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중증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병상이 상급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두 곳만 있고 그 시설 또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남도 감염병전담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의료원 중 한 곳을 중증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19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였다. 이후 언제, 어떠한 감염병이 전 세계를 흔들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방면으로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이에 발맞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중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 및 의료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상급병원인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을 확충하도록 요구 및 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조선대학교병원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전남에서 다수의 지역사회감염이 발생할지라도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어느 도시보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현황

항 목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병상	음압병상	4병상	4병상	없음
	입원 가능 병상	168병상	78병상	91병상
의료인	호흡기내과·감염내과 전문의	1명	없음	없음
	간호사 (행정·응급실 제외)	77명	32명	72명
시설	이동형 음압기	13개	1개	1개
	음압이송 카트	3개	2개	1개
	PAPR	8개	5개	없음